

## 10-9-2011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시편 1:1-6

본문: 창세기 13:1-13

### 제목: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

성경은 세상에 심판이 임할 마지막 때의 유형으로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본보기로 삼을 것을 말씀하신다. 첫째는 노아 때 있었던 홍수에 의한 심판과 두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다. 전자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며 후자에 대하여는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사도 베드로 역시 노아 때의 일도 증거하였다: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재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느니라.”**(벧후 2:4,5)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소돔을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때에 살았던 두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조카 롯이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었던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나 두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같은 차이가 있음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조만간 멸망할 소돔 성에 있다가 비참하게 구원받는 모습을 본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자신만 빠져나와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본다. 마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일들이 타버린 사람처럼 말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 대하여 증거했다:

**“이 닻아 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 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나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전 3:11-15)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 같으며, 롯은 나무와 짚과 그루터기로 집을 지어서 모두 타 버리고 불 가운데서 자신만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보인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함께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결말이 하늘과 땅같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고향과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났으나 롯은 자신의 삼촌의 말을 듣고 함께 떠났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났지만 롯은 단지 삼촌의 도움을 받기 위한 육신적인 생각으로 따라 나섰던 것이다 (창 12:1-5).

**둘째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가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는 회개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회개하는 삶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롯은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고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면서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하여 쳤다(창 13:12).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산지인 가나안 땅에 거하였지만 롯은 마음이 타락하여 조만간 멸망할 소돔을 향해 집을 지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조만간 멸망할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욕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서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로,**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조카 롯이 그를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이제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네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네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음이라.”**(창 13:14-17) 아브라함은 또 다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넷째로,**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패하여 모든 재물과 모든 식량을 탈취당하게 되었을 때 롯은 포를 잡혀가게 되었으며 모든 재물마저도 빼앗겨 버렸다. 이때에 소식을 들은 바브라함은 훈련받은 종 삼백십팔 명을 무장시켜 롯과 그의 재물과 여자들과 백성들을 찾아왔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타락하여 궁지에 몰린 롯을 또 한 번 도와주는 자가 되었으나 롯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롯을 도와주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롯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여전히 소돔에 거했다(창 14:1-24).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라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마침내 자신이 하신 언약을 확정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켈인들과 프리스인들과 캣온인들과 헛인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창 15:18-21)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며 살았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주로 섬겼던 것이다.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세상에 폭 빠져 살고 있었다.

**여섯째로,** 마침내 아브라함이 구십구 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는 다음 해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다. 동시에 그의 씨를 통하여 나타나실 그리스도(갈 3:16)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롯은 멸망할 소돔 속에 빠져서 타락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다.

**일곱째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창 18:1-33). 아브라함은 금방 주님을 알아보고 극진한 대접을 하였다. 말씀과 환상으로만 보였던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조금도 어색함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다시 한 번 이삭이 태어날 것을 확증해 주셨다. 이때 아브라함이 만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친히 증거하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고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요 8:56,58)

사도 바울도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고전 13:12)고 증거했다.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실 일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요 15:13,14)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아브라함의 친구처럼 말씀하셨다.

**여덟째로,** 소돔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들은 아브라함은 곧바로 롯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렸다. 그렇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롯은 성을 심판할 두 천사가 온 것을 보면서도 아무 것도 모르고 여전히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마치 오늘날 마지막 때인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이다. 롯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소돔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롯이 비록 소돔에서 살고 있었지만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다: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라.”**(벧후 2:7,8)

그 당시 소돔사람들의 사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이것이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돌우어 주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은 교만하였고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기에 내가 잘 보고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겔 16:49,50)

그렇다! 롯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혼은 구원을 받았으나 신부단장 하지 못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상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주님을 만날 그리스도인의 예표인 것이다.

아브라함은 삶의 환경이 비록 불편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 비록 그에게 약속의 씨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기다렸던 것이다. 마침내 그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축복을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소돔, 즉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하여 소돔에 거하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사위들을 얻었지만 아내마저도 소금기둥이 되었고 결혼한 딸들은 사위들과 함께 불로 심판받게 되었으며 함께 소돔을 빠져나온 두 딸들마저도 아버지의 씨를 잉태하여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으나 그들의 모두 지상에서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멸망받을 세상과 정욕을 따라가지 말라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5-17)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서는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라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성령의 기름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성령충만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고전 10:11)고 권면했다. 아멘! 할렐루야!

**10-9-2011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salms 1:1-6

Main scripture: Genesis 13:1-13

Subject: **Two kinds of Christian living in the end time**

The scripture is speaking unto us of two kinds of things to come to pass right before the final judgment is to come. The first one is the judgment with the flood at the time of Noah; the second one is the judgment unto Sodom and Gomorrah. Of the first one, Jesus himself mentioned; of the second one, Apostle Peter testified. Apostle Peter also testified of the flood in the day of Noah:

**“For if God spared not the angels that sinned, but cast them down to hell, and delivered them into chains of darkness, to be reserved unto judgment; And spared not the old world, but saved Noah the eighth person, a preacher of righteousness, bringing in the flood upon the world of the ungodly;”(2Pet. 2:4,5)**

In the main passage, the LORD God is speaking of the two men who lived just before God judged Sodom with fire; the first one is Abraham and the other is Lot, his nephew. The scripture testified of both of them as righteous men, but their spirituality looks like the difference between heaven and earth. It may be good examples for us to examine ourselves. Both of them believed God; the first one was in the fellowship with God staying in the land Canaan; the other one was dwelling in Sodom to have miserable deliverance from there when the judgment came upon it. Even his salvation was through the intercessor prayer of Abraham as a naked one barely saved from the fire, as the man whose works are burnt totally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Apostle Paul testified of such kind of Christian:

**“For other foundation can no man lay than that is laid, which is Jesus Christ. Now if any man build upon this foundation gold, silver, precious stones, wood, hay, stubble; Every man's work shall be made manifest: for the day shall declare it, because it shall be revealed by fire; and the fire shall try every man's work of what sort it is. If any man's work abide which he hath built thereupon, he shall receive a reward. If any man's work shall be burned, he shall suffer loss: but he himself shall be saved; yet so as by fire.”(1Cor. 3:11-15)**

In the main passage, Abraham is as the man that build the house with gold, silver and precious stone; Lot is as the one that build it with wood, hay, and stubble so that all his works are burnt away only to save himself barely. Both of them came to the land that was guided by the LORD God leaving their country and their kindred. Then, how their lives are so different each other as heaven and earth? Comparing their life styles to receive the wisdom from God, we are not to be shameful when the Lord Jesus come.

**Firstly**, Abraham departed his country and his kindred and his father to obey the word of God; Lot just followed his uncle. In other word, Abraham gave up all things to

follow the word of God, but Lot followed his uncle to take benefit from him (Gen. 12:1-5).

**Secondly**, Abraham went down to Egypt without the word of God when there was famine in the land of Canaan, but he came back to Canaan with repentance, and called the name of the LORD at the place of the altar, which he had made at the first. In other word, Abraham had the life with repentance and worshipping the LORD God. But Lot lifted up his eyes, and beheld all the plains of Jordan, that it was well watered everywhere; and he dwelled in the cities of the plain, and pitched his tent toward Sodom (Gen. 13:12). Abraham repented and dwelled in the land that was guided by the LORD again; but Lot was corrupted so that he pitched his house toward Sodom that was to be destroyed sooner or later. In other word, Lot was away from God in his heart so that he became to follow the lust of flesh, and the lust of eyes, and the pride of life that were to be passed by so quickly.

**Thirdly**, The LORD God spoke to Abraham right after he repented, and Lot departed from him. But Lot lost the opportunity to hear the word of God, for he was not with Abraham any more. Finally the LORD God gave a word of blessing unto Abraham to give the land of Canaan as the inheritance saying, **“ Lift up now thine eyes, and look from the place where thou art northward, and southward, and eastward, and westward: For all the land which thou seest, to thee will I give it, and to thy seed for ever. And I will make thy seed as the dust of the earth: so that if a man can number the dust of the earth, then shall thy seed also be numbered. Arise, walk through the land in the length of it and in the breadth of it; for I will give it unto thee.”(Gen. 13:14-17)**

Abraham built an altar again unto the LORD.

**Fourthly**, when Sodom and Gomorrah were defeated in the war and all their goods and victuals were taken away, Lot was taken as a prison of war with all his goods. Upon hearing that Lot was taken captive, he armed his trained servants, born in his own house, three hundred and eighteen, and pursued them; and he brought back all the goods and also brought again Lot, and his goods, and the women also, and the people. Abraham, the man of God helped Lot again; Lot was ashamed himself. God allowed Abraham that was awaken spiritually to help Lot, the carnal man. In other word, God gave Lot the opportunity to repent, but Lot dwelled again in Sodom without repentance (Gen. 14:1-24)

**Fifthly**, God confirmed his covenant with Abraham after he was glorified through Abraham that defeated the enemies saying, **“ Unto thy seed have I given this land, from the river of Egypt unto the great river, the river Euphrates: The Kenites, and the Kenizzites, and the Kadmonites, And the Hittites, and the Perizzites, and the Rephaims, And the Amorites, and the Canaanites, and the Gergashites, and the Jebusites.”(gen. 15:18-21)**

In other word, Abraham lived to be prepared to receive the word of God dwelling in the land where God commanded to stay. He served God as his LORD sincerely. He lived life as a servant of the LORD God being obedient to His words. But Lot was deeply involved in the wicked world without presence of God.

**Sixthly**, Finally, The LORD God appeared to Abraham as the Almighty God when he became ninety nine years old; and he said to him to have the Son, Isaac following year. At the same time, God told him to make the eternal covenant through Christ (Gal. 3:16) that is to come through his seed. Abraham was in the fellowship with God continually, but Lot was dwelling in the corrupted Sodom.

**Seventhly**, God visited Abraham in the form of man with his two angels (Gen. 18:1-33). Abraham recognized the LORD at once, and he ministered them with abundant foods. The LORD God used to appear to him through his words and vision; but now he visited him physically in the form of man. Abraham could welcome him without any reluctance. The LORD God confirmed again of the promise of his Son, Isaac to be born. Jesus himself testified to the Jew that the man that visited Abraham was Jesus himself: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and he saw it, and was glad..... <sup>58</sup>Jesus said unto them,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John 8:56, 58)**

Apostle Paul testified: **“For now we see through a glass, darkly; but then face to face: now I know in part; but then shall I know even as also I am known.”(1Cor. 13:12)**

God spoke to Abraham not hiding that thing which he does as a friend. Jesus manifested in flesh also spoke to his disciples as a friend.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Ye are my friends, if ye do whatsoever I command you.”(John 15:13,14)** The LORD God spoke to Abraham as his friend.

**Eighthly**, upon hearing about the judgment against Sodom, he made interceding prayer to the LORD immediately. Yea! Abraham was the man that prayed for the salvation of other people in the end time. But Lot was sitting in the gate of Sodom not knowing anything about the judgment when the tow angels came to him as the carnal Christians that are belong to the world not knowing anything about the end time. Lot was saved from the judgment once again through the prayer of Abraham. But he lost all his possessions, and saved in shame. Apostle Peter testified of Lot:

**“And delivered just Lot, vexed with the filthy conversation of the wicked: (For that righteous man dwelling among them, in seeing and hearing, vexed his righteous soul from day to day with their unlawful deeds ;”( 2Pet. 2:7, 8)**

God testified of the wickedness of Sodom through prophet Ezekiel: **“Behold, this was the iniquity of thy sister**

**Sodom, pride, fulness of bread, and abundance of idleness was in her and in her daughters, neither did she strengthen the hand of the poor and needy. And they were haughty, and committed abomination before me: therefore I took them away as I saw good.”(Ez. 16:49, 50)**

Yea! Lot is the model of carnal Christians whose soul are saved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but are not to be the brides of Christ yet. But Abraham is the model of Christians that are led by the Holy Ghost to see the Lord when he appears in the air to see him face to face.

Abraham might be living in uncomfortable circumstance, but he always stayed in the Land of Promise waiting for the word of God. Finally he received the blessing from God obeying the word of God whenever he spoke to him. Even though the seed of promise was not given yet, he waited to the end believing his word of promise. Finally he became the father of the seed that is the Lord Jesus Christ that is to give the blessing unto all the nations through the gospel. But Lot was looking for the blessing from Sodom that is the world instead of the word of God giving birth to children. But he lost everything including his possession as well as his children under the judgment of fire as well as his wife that became a pillar of salt. Even the two daughters that were escaped from Sodom conceived the seed of their father to be the ancestors of Moabites and Ammon that are destroy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Apostle John who wrote the book of Revelation is warning not to follow the world to be passed away as well as the lust of it toward us living in the end time:

**“Love not the world, neither the things that are in the world. If any man love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is not of the Father, but is of the world. And the world passeth away, and the lust thereof: but he that doeth the will of God abideth for ever.”(1John 2:15-17)**

Who is the one that does the will of God? No one can do the will of God without knowing his will. Where is the will of God? That is in the words of God. Then, who is the one that know the will of God? It is the one that has the thoughts of God. How can we have the thoughts of God? It is possible when we understand the words of God through the anointment of the Holt Ghost. And we can do the will of God when we are full of the Holy Ghost as Abraham. God had written the scriptures in details so that whosoever can be the man of blessing as Abraham, if he wants. Therefore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things that happened in the age of the Old Testament, and encouraged us saying, **“Now all these things happened unto them for examples: and they are written for our admonition, upon whom the ends of the world are come.”(1Cor. 10:11) Amen! Hallelujah!**